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23, 골로새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23번 강의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일에 시작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순서가 없는 한 번입니다. 사실,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머리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순서에 어긋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바로 다음에 또 다른 책을 다루겠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모음인 바울 서신의 맨 끝에 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의 서신은 일반적으로 쓰여진 순서가 아닌 서신의 길이에 따라 배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해질 것인데, 그 이유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실제로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아마도 동시에 기록되어 동시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순서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다음으로 빌레몬서를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종의 함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빌레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가장 짧은 책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은혜롭게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기록을 보존하고 제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문서 모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이 참으로 당신의 말씀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일치시킬 수 있으며, 당신 백성에게 계시된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당신의 계시를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골로새서와 관련하여 저는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골로새서는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가르침을 다루기 위해 쓴 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그 도시에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인도할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골로새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로새서를 읽을 때 골로새서를 읽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토록 염려하고 화나게 한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엇갈린 신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거울 읽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상황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거울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이미지처럼 우리는 전화의 한쪽 끝을 듣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만 듣고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된 골로새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그다지 심각하지 않거나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일종의 일탈적이거나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편지의 감사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당면한 문제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수요일에 본 것처럼 2장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것도 잘못되었다는 힌트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종의 일탈적이거나 거짓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아마도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거나 아직 교회에 침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가르침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다. 즉, 아마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가르침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아직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교사들은 기독교인을 개종시키거나 구원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문화에 존재하는 이 가르침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엇갈린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적 요소가 강한 것 같지만 금욕주의도 강한 것 같다고 여러분께 제안해 드렸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세요.

그리고 신비로운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천사 숭배와 여러분이 본 것들에 대한 이러한 강조와 함께 환상적이거나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유대교와 다른 이교 종교 요소를 일종의 융합한 혼합주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포장했습니다. 하나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단순히 유대교적인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으며, 이 거짓 가르침을 찾기 위해 1세기 유대교 외부를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니엘과 같은 책을 만들어내는 묵시적인 유형의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유대교나 환상, 환상, 천국으로의 승천에 대한 기록인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책과 유사합니다. 하늘 영역에 대한 환상이나 묵시적인 유대교, 또는 아마도 이것은 에세네파와 유사하거나 동일시될 수 있는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콤란 공동체가 유래한 에세네파와 사해 두루마리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시작될 때 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금욕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으며 의식적 순수성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또한 에세네파의 가르침과 콤란 문서에 신비로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관심을 두었던 어떤 종류의 유대교 밖에서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독자들이 묵시적인 유형, 에세네, 콤란 유형의 신비한 유대교에 굴복하거나 속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욕주의와 신비로운 경험과 함께이 거짓 가르침의 경험이 제공해야했던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유대교와 그 금욕주의, 그 신비로운 관습과 가르침에 굴복하거나 그로 인해 잘못된 길로 인도되기를 원합니까? 이제 2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2장은 바울이 이 가르침과 제가 2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는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 역시 바울이 그토록 화나게 한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신학적인 일탈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거짓 가르침은 신학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과 그에 대한 그의 주요 문제는 2장의 두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에 굴복하거나 매력을 느끼기 직전의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 번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며 사람의 생각을 따라 까닭 없이 과장한 환상을 생각하여 너희를 실격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을 묘사하는 쿨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까닭 없이 과장된 환상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마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인 교회가 마디와 힘줄로 영양분을 받고 연결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주된 문제는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스스로 잘려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은 만물을 유지하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새 창조의 창시자이십니다. 자, 거짓 가르침이 끊어진 것은 바로 이 예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거나 더 이상 연결하지 않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은 23절입니다. 바울은 21절을 다시 읽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너희가 이 금욕적인 유대교의 규정, 이 거짓 가르침에 복종하느냐고 말합니다. 취급하지 마세요, 맛보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명령이자 가르침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스스로 경건함과 겸손함과 육체를 가혹하게 대우하는 데에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방종을 억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방종의 죄와 육체의 죄를 지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이를 확인하는 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주된 문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죄를 극복하고 방종과 육체의 죄를 극복하는 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만일 이 거짓 가르침이 극도의 금욕주의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신비한 환상의 체험을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바울이 방종과 세상의 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육체, 그러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3장과 4장은 바울의 대답입니다.

따라서 1장부터 시작합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겠지만 그가 3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그것은 금욕적인 관습과 유대인의 거짓된 신비적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짓 교훈의 머리가 벗겨졌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위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감취었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생명을 나타내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바울의 요약입니다. 만약 거짓 가르침이 방종과 죄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썄요, 위의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죽었고,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자들과 함께 앉았느니라.

아마도 이것이...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주목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바울 자신의 일화나 거짓 교사들의 신비로운 환시적 경험에 대한 반응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장려하거나 그리스도인 자신의 경험, 즉 천국의 경험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앓음으로써 옵니다. 이제 질문은, 바울의 해결책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그들의 금욕주의 대신에, 신비로운 환상적 경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의 연합에 기초하여 사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1장부터 4장까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이 모든 언어, 그리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말은, 이 전체 섹션이 해당 맥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언어 자체가 다소 신비롭고 상당히 이상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3장의 처음 네 구절은 일종의 요약, 요약 또는 논제 진술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3장 5절부터 시작하여 4장까지 바울은 이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5절부터 그는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땅에 속한 것 곧 음행과 더러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것, 즉 노여움과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욕설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 집도 없어도, 그런 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말과 언어의 남용, 불순함 등과 같은 악덕의 목록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이라 하신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뜻은 12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평할 것이 있거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즉, 바울의 지시는 전적으로 윤리적입니다.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준신비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로지 윤리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특정한 방식으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즉, 그들은 5절부터 시작하여 그가 열거한 종류의 악습을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3장의 처음 네 구절을 취한다면, 바울이 일종의 신비로운 경험을 옹호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다행히 바울은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과 4장에 관한 또 다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옛 자아와 새 자아의 언어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들의 행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9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롭게 됩니다. 이제 우선, 바울이 옷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사람이 입어야 할 미덕을 특정 옷과 비교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옛 자아와 새 자아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옛 자아는 내가 제거하는 내 존재의 어떤 존재론적 부분이 아니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내 안에 있지만 옛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죄의 권세 안에 있는, 아담이 속해 있는 이 악한 시대의 영향 아래 있는 나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머리. 그러므로 아담은 인류를 죄에 빠뜨린 인간으로서 이제 아담은 죄와 죽음, 죄와 죽음의 노예로 특징지어지는 영향력의 영역인 인류의 우두머리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바울이 입으라고 말한 새 자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 새로운 영역, 의와 생명과 성령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새로운 영향력의 영역에 속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주목하세요. 이미지의 언어를 주목하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10절에 따라 이 새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집니다. 그 언어는 당신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 새로운 자아는 성령을 통한 의와 생명으로 특징지어지고 지배되는 영향력의 영역인 이 영역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따라 새롭게 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그 언어, 지식, 이미지, 창조자.

당신은 돌아 가야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따라서 바울이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창조 신학을 가정하고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지 못한 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일, 아담이 실패한 일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의 일부를 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인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여전히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무너졌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다시 1장으로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담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데 실패하고 대신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 새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영하시며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그 형상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이해한 배경에는 아마도 아담과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3장과 4장, 특히 3장과 관련된 또 다른 점은 바울의 직설 명령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직설 명령을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진술을 합니다. 이 말은 다소 강력하고 절대적인 진술이지만, 그러면 그는 돌아서서 명령으로 그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일어난 것,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해 여전히 일어나야 하는 것 사이의 긴장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직설법 3절에서 나는 다시 골로새서 3장에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소 절대적인 진술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므로 죽었느니라. 그러나 바울은 5절에서 돌이켜 말하기를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첫 번째는 이미 그리스도에 속함과 왕국의 시작과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공하시는 구원에 근거하지만 아직은 명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자동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명령형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는 다시 10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자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새로운 인류, 내가 속한 이 새로운 영향력의 영역,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고 의와 생명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나는 이미 입었지만 몇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나중에 그는 동일한 명령을 사용하여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설법과 명령문의 균형을 맞추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구원의 이미 측면과 아직 아닌 측면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다시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한 다음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모순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복음서에서 본 것과 동일한 긴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충만함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도 그러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큰 개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골로새서가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영감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은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골로새서의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다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최상권과 그분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에 관한 대부분의 진술은 첫 번째 것만을 포착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에게는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교리적, 신학적 일탈이 아니라 윤리적 함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독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우월성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1세기이든 21세기이든 일탈적이고 대안적인 가르침에 맞서 싸우고 저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건 그렇고, 골로새서에 관한 또 다른 점은 나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이러한 신학적, 윤리적 대안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이 가르침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교사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독교 유대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자 강조점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따라서 세 번째 시험에서는 골로새서에 대해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모두 맞힐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우편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서 우체통으로 가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꺼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전에 본 편지와는 매우 다른 편지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본 편지는 특별히 개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를 좀 더 자세히 읽어 보면 이 편지가 가정교회 전체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 가정교회에게 보낸 것이 분명해집니다. 빌레몬에게만. 그러므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이름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은 내가 왜 빌레몬서를 골로새서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동시에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수치 중 일부가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모두 나옵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골로새 도시에 살았던 부유한 기독교 노예 소유자이자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둘 다 동일한 출처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위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관계는 빌레몬서가 아마도 골로새에 있는 특정 교회, 즉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에 전달되었고,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 전체에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세기 초기 교회는 아마도 집에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침탑이 있고 우리처럼 멋진 강당을 갖춘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만났을 것이고, 종종 15명에서 25명, 30명 정도의 그룹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개인의 집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집이 이러한 가정교회 중 하나의 위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로새 시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부유한 개인이었고 노예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집은 아마도 그 도시에 있는 집회 장소 중 하나이거나 교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골로새. 이제 주요 질문이자 빌레몬서를 다룰 때 까다로운 질문 중 하나는 애초에 이 책이 왜 기록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모두 앉아서 빌레몬서를 읽게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흥미로울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것이 바울이 쓴 가장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편지 모음 중 마지막 편지입니다. , 그러나 빌레몬서를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일반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앉아서 이 글을 쓰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는 거울읽기, 즉 편지를 읽고 편지에 담긴 이면의 상황을 보는 것, 또는 전화 대화의 한쪽 끝을 듣는 것, 빌레몬을 읽을 때 매우 널리 퍼져 있는 거울 읽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애초에 바울이 앉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떠올릴 수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저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 중 세 가지, 즉 빌레몬 뒤에 있는 상황을 가장 일반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재구성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설적이라는 점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을 읽을 때 제가 말했듯이 빌레몬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과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사이에 공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지를 읽고 공백을 메우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보내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구성을 생각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편지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있고 그 두 명의 주요 인물은 바울과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세 번째 사람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지배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호 작용에 관한 편지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명의 주요 인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살펴본 다른 편지들에서 만난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빌레몬은 아마도 1세기 도시 골로새의 부유한 그리스도인 노예 소유자이자 주인이었을 것이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매번 즉시 이 일을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번 그렇게 해요. 나는 그 점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빌레몬을 말할 때 종종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손을 들고 "뭐요?"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빌레몬 말씀이신가요?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나는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붙잡고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참신한 일이 될 것입니다.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 다시 말하지만, 오네시모는 노예이며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상호 작용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주요 인물, 즉 두 주요 인물은 분명히 바울과 빌레몬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상호 작용 및 관계에 관한 편지입니다.

이제 문제는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사이의 편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첫 번째 재구성이고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것입니다. 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레몬, 또는 거기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해리슨 포드와 함께 도망자(The Fugitive)를 본 사람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도망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뭔가 잘못을 했고 지금은 도망다니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도망쳤고 아마도 주인을 훔쳤거나 무언가를 훔쳤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도망쳐 도망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오네시모가 또 그런 짓을 했고, 결국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옥중서신 4서 중 하나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든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의 사역 아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온갖 종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제가 다시 그랬듯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을 것입니까? 오네시모는 어떻게 바울에게 다가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신의 섭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네시모가 기독교로 개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견해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도망자이고, 도망친 노예이며, 주인에게 잘못된 일을 했고 지금은 도망쳐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까지 갔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면 오네시모는 장난을 치지 않고 로마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오네시모가 실제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는 실제로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를 섬기도록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는 그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빌레몬과 교회에 의해 바울에게로 보내졌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이 떠났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에게 선물이나 어떤 것을 주도록 교회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내가 좋아하지만 여전히 가설로 남아 있는 세 번째 제안은 라틴어로 주인의 친구인 *amicus domini*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로마법에 따라 노예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과 어떤 종류의 분쟁이 있거나 사이가 나빠지면 노예는 해결을 돕기 위해 중재자를 찾거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른 분쟁.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는 도망자,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대신 그와 빌레몬,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떤 종류의 논쟁이나 사이가 벌어졌고 이제 오네시모는 로마 통치 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고의로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오네시모는 의도적으로 가서 문제가 무엇이든 해결하기 위해 분쟁의 중재자로서 바울을 찾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네시모는 도망자 해리슨 포드가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대해 완전히 알고 그의 주인에 대해 완전히 알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어떤 분쟁이든 중재자로서. 그게 세 번째이고, 몇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 번째 시나리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나리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라고 주장하는 좋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일은 그가 중재자로서 바울을 찾으러 가는 동안 그 동안 오네시모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고, 이제 바울이 할 일은 기본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종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료 형제가 되었느니라.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에 관한 논쟁 중 하나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자신을 풀어주도록 하여 주로 그가 바울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미묘하게 유도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빌레몬서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의무를 행하라고 담대히 명할 수 있으나 오히려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이니라. 흥미롭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어 사도로서 권하지 않고 사도로서 권면하되 사랑으로 권하노라.

나 바울은 늙은 사람으로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서 이 일을 하노라. 나는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바울이 사용하는 가족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1세기에는 가족 언어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언급하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딸, 아이들 그런 가족형 언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동안에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더니 이제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참으로 유익하니라.

나는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동안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선행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너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더 좋아한다.

내가 보기에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그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이 자신의 봉사애 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다소 전술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빌레몬서는 재치 있는 설득의 기술을 연구한 책이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호소한다는 사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도 빌레몬이 풀어내기를 바라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빌레몬을 미묘하게 설득하고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다시 보내어 그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는 이 선한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빌레몬에 대해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1세기에 매우 일반적인 유형의 문학 장르나 형식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편지나 서신이라고 말했지만 이메일을 통해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편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약혼자나 배우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쓰지 말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편지를 쓰지 마세요. 당신이 일자리에 지원하는 편지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다양한 규칙이 있습니다.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쓰는 방식을 지배하는 다양한 유형의 편지와 다양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1세기에 우리가 추천서로 알고 있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저자가 글을 쓰는 곳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표지 편지입니다. 또는 저자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추천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추천서인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재치 있는 설득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추천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편지의 작성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

대가로 작성자는 호의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요청을 따라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고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그 호의에 보답할 수 있도록 거의 사회적 의무를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에서도 사회적 역동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빌레몬의 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유형의 편지를 선택했으며 다시 한번 재치있게 그를 설득하여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를 풀어주고 바울에게 다시 보내십시오. 좋아요, 그렇다면 빌레몬에게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편지에 관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바울이 쓴 가장 짧고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빌레몬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왜 교회는 그것을 정경의 맥락 안에 두었나요? 왜 그것이 교회의 정경의 일부가 되었습니까? 왜 그것이 신약성서의 일부입니까? 교회는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을까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예를 풀어주는 주인에 관한 편지와 그 짧은 편지가 어떻게 빌레몬서를 읽을 때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 보았던 모든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구원과 칭의와 의와 성령과 새 창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그런 종류의 언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교회가 그러한 개인적인 것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학적 지배적 주제가 모두 결여된 듯한 짧은 서신이요? 오늘날 교회를 위한 이 편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울 서신 모음집에 이 서신을 포함시키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 개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넣었기 때문인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필요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리더십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비전이나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또 뭐야?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을 다룬 이 편지를 보존하기를 열망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니까? 사랑과 용서는 누구에게? 후원자가 아니라, 가까운 후원자-고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인과 노예. 그래서 필레몬, 이 책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필레몬이 차별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사랑과 용서를 모델로 삼고 강조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예와 주인과 같이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에서 빌레몬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그러한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종이도 자유인도 없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사랑과 용서는 사회의 모든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며, 특히 그러한 차별을 두고 싶어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가 미리 말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레몬서 6절은 빌레몬서에는 장(章)이 없으므로 단지 한 절씩 진행됩니다. 빌레몬서 1장과 빌레몬서 25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은 가장 마지막 절이므로 장도 없고 참조 구절만 있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서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너희가 깨달을 때에 너희 믿음의 전도가 효과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한다. 그것과 다르게 읽히는 번역본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과 다른 것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입니다.

NRSV나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빌레몬서 6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빌레몬에게 더욱 전도하고 그의 믿음을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른 번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좋은. 나는 그것이 더 좋다. 당신의 믿음의 동역자임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책 전체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로서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믿음을 나누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공동의 공유 또는 참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복음이 사회적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복음. 빌레몬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면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둘 다 사회적 구별을 초월하는 이 복음에 동등한 참여자이며 동등한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치 있게 여겨졌을 주요 수단이었던 문화적 중요성과 문화적, 사회적 구별에 대한 복음의 영향에 대해 이 책이 말하는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좋은. 빌레몬에 관해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울이 곧바로 나서서 노예제도를 비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노예 제도를 그토록 반대해 왔다면 왜 바울은 바로 나서서 노예 제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은, 이곳은 바울이 나와서 노예를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기에 좋은 장소였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인간을 소유하고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아야 하며, 당신의 종인 빌레몬과 교회의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왜 그는 나와서 노예제도를 즉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문제에 자신이 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는 바로 나와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다음 문서나 신약성서의 다음 편지로 넘어가기 전에 월요일에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은.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23번 강의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